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성근

제3회 컴세미나(3rd COME Seminar)

-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로 -

'한국 교회의 성장' 을 가르친다

9월 28일~10월 6일, 인도네시아 목회자 등 31명 초청
실제적인 목회현장 탐방 및 한국의 현실 이해의 기회



교회는 9월 28일(수)부터 10월 6일(목)까지 9일간 제3회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 Seminar)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압본기독교대학 총장, 노회장, 군수를 비롯한 현지인 목회자 등 31명이 초청되어 110년의 한국 교회 목회현장을 견학하게 된다.

지난 90년 11월에 동구권 7개국 목회자 27명이 참가함으로 처음 열린 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는 91년 5월에는 동남아시아지역 중국어권 목회자를 초청하여 실시했다. 세번째로 열리는 금년 충현해외목회자교육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교회는 외국의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이 몸소 느끼도록 함으로 도전과 자극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하여 스스로 실천신학적 기반을 세우게 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초청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주재 서만수 선교사가 추천한 현지 목회자로 기간중 비용은 교회가 전체를 부담하고 항공료는 초청대상자의 형편을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일간 진행될 세미나는 교회부흥과 설립, 전도에 관한 특강 외에 교구·구역예배 참관, 가정심방에 동참, 총회신학대학 방문과 순교자기념관 및 제암리교회 방문과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판문점 견학과 관광, 충현기도원에서의 산상기도, 금요집회 참석 등과 현지교회 부흥을 위한 분임토의, 현지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강은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에 정삼지 목사(재자교회), 김병선 목사(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킨슬러 목사(할렐루야교회 협동목사), 로저 시니어 목사(OMF 선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청자들은 9월 27일(화) 오전 7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하루동안 예비교육 및 정리시간을 갖고 28일(수) 오전 교회에 와서 교육준비를 한 후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으로 세미나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 7시 수요일부 예배시에는 제3회 컴세미나 개회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된다.

또한 29일(목) 오후 7시에는 본당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참석자와 교역자, 당회원, 선교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모이는 환영 리셉션이 있게 된다.

기간 중 숙소는 햇빛선교회관 숙박실에서 하며 식사는 교회내 식당에서 하게 된다.

학습 66명, 세례 107명 등
9월 16일, 학습·세례식에서

지난 9월 16일(금) 가졌던 학습·세례식에서 학습자 66명, 세례자 107명, 유아세례자 39명, 입교자 10명, 개종자 3명이 나왔다.

이날 학습·세례식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집례했고 임성환, 상봉환, 장봉생, 최인근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다.

에·수·사·광·칼·렐
같이 잘되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모든 삶의 환경들은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도 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같이 잘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사랑 큰장치는 우리의 이웃들이 한 가족인 것을 체험하는 잔치이다.

9월 새가족환영회

각 교구별로 교구모임시간에
오늘은 교구연합모임이 없어

9월 새가족환영회가 오늘(9월25일) 17부 예배후 각 교구 모임장소에서 갖는다. 9월중 새로 등록한 사람이 그 대상인데 인도자는 새가족을 이 모임에 참석시켜 하루속히 교회와 교구에 적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교구에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한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환영회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교구연합모임은 새가족 환영회 관계로 모이지 않는다.

바울전도회 연합회

9월 25일, 전도특강

바울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예수사랑 큰장치를 준비하며 바울전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총동원을 위해 오늘 9월 25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바울회원과 전도회원 대상(남 50세 이상)되는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전도회 연합회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대학부 지도 장봉생 목사.

94 예수사랑큰잔치

이제는 초청장을 보낼 때

10월 11~15일, 16일 저녁에 맞추어

3개월 동안 준비해 온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마지막 결실을 향해 달음치고 있다.

10월 11~15일까지의 초청전도집회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마련됐다. 초청장에는 초청자와 초청받는 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적는 단이 준비되어 있다.

이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초청장에 기록할 사항을

은 뒤 그리스도의 편지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면 된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초청장을 가지고 나와 제출하여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남은 날은 2주간, 그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절령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4-예-수-성-광-칼-렐-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충현교회에서는
귀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10.11~10.15일까지 초청장집회를 열고
10월 16일에는 94예수사랑큰잔치를 여의하여 초청하오니
꼭 오셔서 흥성한 잔치에 큰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4.10.
당회장 신성종 목사

● 초청받은 분 ●

이름	나이	(남·여)
주소		
교회 (지역)	(직업)	

● 초청받는 사람 ●

이름	제()교구 ()구역
주소	

★자세한 사항은 교회당 입구 안내처에서 문의하십시오.

--개 회--
10월 11일 7:00 10월 12일 9:00 10월 13일 11:00
10월 14일 1:00 10월 15일 5:00
--초청집회--
1994.10.11~10.15

초청완료 후 5:30

예수사랑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대표전화 552-8200

사데교회는 라오디게아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데교회는 원문에는 썩디스라는 교회인데 저는 사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사(死)자와 큰 대(大)자 사대교회(死大教會)라는 이름을 늘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여러 가지 경건한 의식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바로 사데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데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1. 사데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사데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3:1) 하나님의 일곱 영광이라는 말은 성령이외의 또 다른 여섯 영광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합하면 7인데 그래서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일곱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일곱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고, 일곱 가지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함과 어디나 계시는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일곱 별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데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일곱 별을 당신의 오른장중에 품으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관주이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2. 사데교회의 현황

사데지역은 그 당시 루디아의 수도로 사데교회는 그 당시 있었던 교회 중에서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대교회입니다. 사데지역은 섬유산업과 보석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데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멋을 좋아했고,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자들이 금은보석으로 단장하고 쾌락에 물혀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데지역에 세워진 사데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 즉, 굉장한 명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었으나 기계적인 천복만 있을 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데교회는 사해바다처럼 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데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된 이유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도무지 행함,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데교회였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 5:6)고 했는데 사데교회는 주님께 영광돌리는 것보다 세속적인 생활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3. 사데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3:2)

일깨운다는 말은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상태가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과 죽게 된 것은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것은 단단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데교회는 천연요새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밖에서 누가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만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방어하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무관심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두 번이나 침공을 받아서 사데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데교

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한 적이 있지? 너희들 그런 침공을 받아 본 적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먼저 잠에서 일깨워야 합니다. 이 말은 도무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깨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데교회는 일반 무성

충현강단



사데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3:1-6)



신성종

<목사·당회장>

무화과나무처럼 도무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죄없다는 뜻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돼지가 흙탕물에서 뒹굴듯이 성도들은 세상의 흙탕물, 죄악의 흙탕물 이 세속적인 흙탕물에서 몸을 뒹굴면서 ‘어 시원하다. 어 기쁘다. 좋다’ 그러면 앞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3: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이 생겼어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결국 배신하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습니

4. 사데교회의 그릇터기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롯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썩었을 때도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데교회가 근본적으로 썩었지만 그 교회에도 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첫째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청의의 옷,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옷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복처럼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듯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데교회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마 10:37, 38).

5. 세 가지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이 사데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인데 원문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말은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주님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셋째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그냥 명령문이 아니라 제일부정과거 명령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명령입니다. 영어나 불어나 독어 같은 말에는 이 과거명령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만 있는데 결단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에 이런 과거명령을 씁니다. ‘회개하라’는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흰 옷,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속죄의 옷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신부들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뜻이 있고 속죄의 뜻, 영광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흐려진다는 말은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시 5절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말씀을 파칩니다. 6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와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살며 생각하며 ●



자동응답기와 하나님

원 용 숙

(집사, 아멘찬양대원)

자동 응답기가 달린 전화기를 하나 샀다. 사람들은 꼭 내가 없는 시간에만 전화를 해서는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들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메시지라도 남겨 놓으라는 뜻으로 산 것이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저는 지금 외출 중이오니 메모를 남겨 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녹음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출을 했다.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응답기에는 전화가 왔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깜박이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작동을 시켜보니 뽀뽀 거리는 소리만 날뿐 메모는 남겨져 있지 않았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투덜대면서도 누가 전화를 했을까 사뭇 궁금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오히려 전화가 왔었음을 모르는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이후에도 자동 응답기는 뽀뽀 거리거나 무언가 말을 할려고 숨을 할 딱이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메시지는 남

겨져 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뒤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자동 응답기를 켜다. 한참을 망설이면서 응답기에서는 70이 넘는 신이어님의 음성이 흘러 나왔다. “나다. 엄마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 놓으셨는가보다.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보니 어머니께서는 손주들 목소리나 들을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대답도 없는 기계에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끊어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는 이번에도 자동 응답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전화하지 않으려 했으며 도대체 기계에다 말을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전화란 서로 용건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그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정을 느끼고 감정의 교류가 느껴지는 것인데 혼자만 말을 하려니 영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불평을 들으며 나는 뒤통수가 멎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믿음생활이 바로 자동응답기와 같았던 것이다. 그저 나에게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주님을 자동응답기로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통고만 했던 것이다. 또 나 역시 자동 응답기만을 들여 놓고 주님이 전해 주는 메시지만을 들으려 했던 것이었다. 주님도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나와 감정이 통하는 대화를 원하셨을텐데 말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두번의 예수사랑 큰잔치를 지나면서 난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태신자 카드를 쓰고 편지를 계속 보냈지만 올듯 하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집사님은 열매가 넘게 전도를 해오고 어떤 권사님은 삼십명이 넘게... 듣기만 해도 자신이 없어지는 말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올리는 거의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어머니와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 집에 달아 놓은 자동응답기같은 전도를 했던 것이었다. 용건만 간단히 알려 달라는 식이었으니 말이다. 나의 잘못된 믿음생활을 반성하고 위로받고 싶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몇번의 신호음이 울리더니 자동응답기의 녹음된 메시지가 흘러 나온다.

“집사님, 저예요.” 더 이상 나도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건 기계에서 나오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인 것이다.

순간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분이셨으리라 느껴졌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자동 응답기 같은 의례적인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막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또 예수사랑 큰잔치에서도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만으로 자동응답기에 대고 말하듯이 의례적인 전도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불교에서의 부처가 대부분 앉아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빼고는 거의 다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불교는 정적인 종교이고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라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에서는 좀더 성의를 내야겠다. 언제라도 당신을 원하는 곳이면 달려 가시려고 서 계신 주님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자동응답기에 대고 일방적인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 앉아 마음과 마음을 열어 놓고 감정이 통하는 그런 전도를 해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 귀찮아하지 말고 서 있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있는지 찾아 보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자동응답기에 녹음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전화선은 항상 열어 두어야겠다.

간 암으로 빼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든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행려환자들에게 다가가 컵속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든, 교통사고로 사지가 절단된 환자에게 조심스럽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것이든지, 찬송과 기도를 부탁하는 환자들과 함께 울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날마다 새로운 NMC 병원전도의 모습들이다.

대학부 1학년때부터 시작하여 대장의 자리에까지 개인적으로 5년을 섬긴 NMC활동은 그렇게 늘 비슷비슷한 환자들과 상황에 처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왔다. 그러나 그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새로움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

처음에 NMC라는 소그룹이 대학부에 있는 것을 알고 이내 관심이 생겼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새로운 마음들(New Minds in Christ)’이라는 이름도 마음을 끌어당겼고, 찬양으로 환자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모임이라는 큰 도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전도를 할 수 있었듯이,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었다. NMC에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것,

철저히 나의 말과 지식을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해야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NMC에서 얻은 은혜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같은 은혜라는 것

만졌다고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뜨겁게 은혜로 다가오면서 내 안에 예수를 주

아니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다. (행16:25)

하나님의 은혜때문에 부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힘이 이끌려 찬양해야 한다. 성령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감사와 기쁨,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 NMC병원전도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병실에 올려퍼지는 우리의 찬양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찬양의 힘을 체험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NMC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중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특별히 젊어서,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전 12:1)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며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영광스런 자리에까지 설 수 있다는 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올해로 창단 20년째 맞는 NMC 대학부성가전도대, 20년이면 성인이다. 보다 성숙하고 보다 능력있는 전도모임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20년 동안을 동일한 전도를 해왔지만,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간섭을 더더욱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찬양과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면서, 대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대학부 성가병원전도대 NMC를 말한다

창단 20년 - 성인으로 발돋움

이 기 업
(대학부)



▲ 하기전도여행 중 마산 결핵요양원에서 환자를 앞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었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인생에 대해 한번쯤 진지한 생각에 잠기게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하여지는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많다. 마음이 강박해서 우리에게 심한 욕설과 빈정대는 말로 상처주기도 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는 우상을 의지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만을

라고 고백시키는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이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찬양을 하는 모임에 있어 가장 큰 명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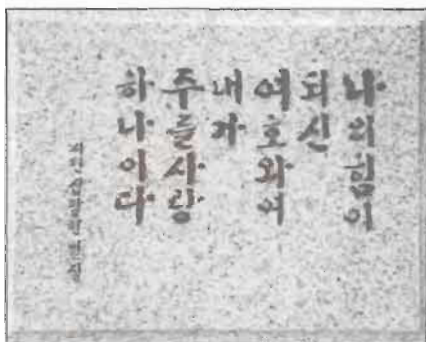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찬양이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음이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악전공자들이 모여야 하는 것도

토막소식

- ◆ 수도노회 정기 가을노회가 오는 10월 11~13일 우리 교회 본당 및 부속건물에서 열린다.
- ◆ 전도위원회에서는 갈릴리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아들의 집교회(경기도 파주군)와 우리 교회 지교회인 신원교회(강원도 정선군)의 교회당 건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효은교회(충북 괴산군, 신영권 목사)와 구도교회(전남 완도군, 박대철 전도사)에 보조금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 ◆ 탁아부는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갈아입힐 옷으로 헌옷(아동복)을 수집하고 있다.
- ◆ 영아부는 새친구초청잔치를 10월 9일 하기로 하고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유치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으며 한밤에 2명씩 전도하여 100명을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 ◆ 초등1부는 9월 25일(오늘) 예배 후 글짓기대회를 한다. 제목은 '즐거운 초등1부'.
- ◆ 초등2부는 9월 25일(오늘) 3학기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자체 예수사랑 큰잔치는 10월 30일.
- ◆ 초등3부는 10월 9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취침전 10분간 기도하고 있다.
- ◆ 초등4부는 9월 한달을 학생대심방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방하고 있다.
- ◆ 초등5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기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 ◆ 중등1부는 9월 25일(오늘) 임원헌신

예배로 드린다.

- ◆ 중등2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9월 25일(오늘)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 ◆ 중등1부·2부·3부는 연합으로 오는 10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갈릴리홀에서 '시와 찬양의 밤' 행사로 모인다. 이는 중등부 연합의 전통적인 행사로 교회 내의 중등부 해당 학생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 고등부는 10월 23일 제2차 미래지도자 운동('94 예수사랑 큰잔치)에 실시할 찬양한마당 축제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 ◆ 장년1부는 9월 25일(오늘) 그동안 집회시간에 강의한 히브리서를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 ◆ 장년2부는 그동안 집회시간에 강의한 출애굽기를 범위로 10월 23일,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 ◆ 소망부는 9월 25일(오늘)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지정곡은 231, 313, 427장 중 한곡이며 각 반을 10개조로 묶어서 실시한다.
- ◆ 새가정부는 9월 25일(오늘) '부부의 신앙성장'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특강 후 면회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26일(월)-28일(수) 고양 원당지역 연합성회 인도(고양 갈보리교회),
29일(목) 제79회 총회참석
- 신성중 목사 : 26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27일(화) 제79회 총회참석,
30일(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특강
2. 9월 27일부터 있을 COME Seminar에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이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3.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예수사랑 큰잔치에 태신자와 앓은 양들을 모두 초청하여 결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4. 9월 27일부터 있을 제79회 총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충만한 총회가 되어 죄로 오염된 한국을 말씀으로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5.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개혁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도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5월 8일~9월 30일까지

도서관 장서 확보 및 각 기관 기증키 위해

도서장학회에서는 지난 5월 첫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수집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수집하는 도서는 각 개인의 가정에서 보던 책으로 신앙서적, 문학전집, 전문도서 등 각종 책을 포함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미 보고 난 책을 가져오면 되는데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도서장학회에서는 수집된 도서 중 도서관에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기타 책은 각 기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



자국의 수도인 자카르타까지만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던 오지의 사역자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는 것은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남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사 4:3-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남방 오지사역을 위하여 수고와 정성을 기울이시는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급변 전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장년 62명과 어린이 9명이 결신하게 되었고 11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991년부터 평신도 및 가정어 예배 드리기 시작한 Baileh인교회는 이따금씩 관광객 Baileh 방문하는 교역자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연말(1993년)부터는 본 선교부 산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지교회로 정하고 어린이 축복예배, 성례식, 집사 임직식 등을 거행하였으며, 서류를 정비하는 등 행정 및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교역자가 속히 부임하도록 기



선교지에서 온 소식

연합교회의 자체시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현지 사역자 세미나에는 홍콩중헌교회의 윤용규 목사, 박종형 선교사, Rasbandyngan 목사 등이 강사로 동원되었고 중헌교회로부터 이종국 장로님이 파송되어 참관하셨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정국의 변화로 어려워가고 있는 오지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선교의 망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

도해 주십시오.

본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69개척지의 현지사역자 등 97명이 현지사역자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카르타 한인

터 남방오지선교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나가며 세계선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헌교회에서는 세계를 지역별로 나누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교역자 초청 세미나를 필두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사역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집중적인 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COME 세미나에는 본 선교부 산하 개척교회 사역자 69명 중에서 모범적인 사역자 30명을 선발하여 참석케 할 예정입니다. 자국의 수도인 자카르타까지만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던 오지의 사역자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는 것은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회교도들의 '하지일' 새벽 1시경 소총을 알 수 없는 청년들 수십명이 제57번 개척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돌을 던지며 "죽여라" "불 질러라" 등 소리치며 달려드는 사이에 사역자와 식구들은 몸을 피하였으나 유리창문 등 가물이 부서지고 사무기구와 옷가지 등이 다 없어졌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가는 개척사역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동안 기독교신화에 연재된 선교수기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선교회의 회장인 김경환 목사(서울신성교회)의 사회로 6월 16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에서는 최기재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창인, 한석지, 이성택 중경총회장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제2대 장로, 제3대 안수집사 장립과 초대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남방에 이룩된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